시 론

왜가리와 쥐, 그리고 여우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이른 새벽 천변 달리기 중에 회백로를 만났다. 입에 뭘 물고 있는데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니 백로 입에 물려 있는 것은 들쥐였다. 하천에서 물고기만 잡아먹는 줄 알았더니 천변의 쥐도 잡아먹나 보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 회백로는 천변 물속에 서서 우거진 풀밭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의 기억으로 한동안은 풀밭을 쳐다볼 것 같다.

며칠 전에는 아파트를 나서다가 길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커다란 쥐 한 마리를 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쥐떼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도시도 그러하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쥐가 잡히면 방역업체에 연락이 가는 '스마트 쥐덫'을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고 있단다. 그들은 어쩌다 쥐로 태어나 그러한 수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싶다.

쥐는 필자에게 그리 징그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젊은 시절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아티스트로 일할 때, 작업실에서 커피 캔으로 잡은 쥐를 키우면서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운영하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새로운 캐릭터를 구상했는데 고양이, 개, 토끼와 다른 독특한 귀를 가지고 있고, 단순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쥐가 최종 선택됐다. 이때 만들어진 쥐 캐릭터가 바로 미키 마우스이다. 미키를 통해 쥐를 귀여운 동물로 재탄생시켰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문쥐떼 같다"고 하셨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느 가을날 들판에서 나락을 베다가 문쥐떼를 직접 보았다. 커다란 어미 쥐가 갑자기 튀어 나가는데, 그 어미 젖에는 새끼들이 열매처럼 줄렁줄렁 매달려 있었다. 나락 논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다가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니, 급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새끼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모두 어미 젖에 매달리게 했던 것 같다.

소백산에 여우를 방사하고 있다고 한다. 여우 개체수가 늘면 도심과 지하철에도 방사하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미국 옐로우스톤에서 만난 여우가 생각난다. 밤이면 숙소 옆으로 내려와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손에서 받아먹기까지 했다. 초등학교 시절, 십리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는데 오가는 길에 종종 고라니를 비롯한 여러 산짐승을 만나곤 했다. 한동안 사라졌던 산짐승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심에서 만나는 여우는 어린왕자의 별에 사는 여우처럼 정겨울 것 같다.

가리는 음식이 있냐고 물으면, 나는 늘 "사람들이 먹는 것은 거의 다 먹습니다. 사람들이 못 먹는 것도 먹습니다"라고 답을 한다. 가을걷이 후 타작한 나락을 쌓아놓은 곳간에는 아무리 구멍을 막아도 쥐가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쥐덫을 곳간에 설치해 놓으셨다. 서늘한 늦가을 초저녁, 할아버지께서는 종종 특별한 이벤트를 하셨다. 마당에 숯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준비해 쥐고기 숯불구이를 해주셨다. 사냥해온 들쥐의 살을 발라 새끼들의 입에 넣어주는 매처럼, 할아버지는 마당의 화롯가에 둘러앉은 우리들의 입에 숯불구이를 한 점씩 넣어주셨다. 곳간에서 쌀만 먹고 자라 통실통실하게 살이 오른 커다란 쥐는 숯불에 구우면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 받아먹지 않으려는 아이에게는 "쥐는 머리가 좋은 아주 영특한 동물이란다. 이걸 먹으면 너희 머리도 좋아질거야"라고 말씀하셨다.

단백질 섭취가 어려웠던 그 시절, 여름에는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 삼계탕을 만들어 주셨다. 삼이 너무 써서 먹는 척하다가 죽석(대나무로 만든 장판) 밑에 사알짝 밀어 넣었던 기억이 난다. 가을에는 통통한 쥐를 가지고 특별한 단백질 섭취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다. 할아버지 덕인지 우리 형제들 모두 머리가 나쁘지는 않다.

쥐는 12간지의 첫 번째 동물이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들었던 꾀 많은 생쥐 이야기는 기억이 생생하다. 옛사람들은 쥐를 재치와 생존력의 상징으로 보았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곡식 창고에 사는 쥐를 부와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갈 곳 잃은 쥐는 그저 박멸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의 신세가 측은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회갑을 넘긴 쥐띠여서 일까?

기 고

종이책과 E-book, 공존의 미학

조 영 인
출판인·조인애드컴 대표

종이책의 시대가 저물고, E-book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서점에는 책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손에는 E-book 리더기와 태블릿이 함께 들려 있다. 이는 종이책과 E-book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독서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종이책의 매력

종이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경험을 선사한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인쇄된 잉크 냄새, 책장을 넘길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디지털 기기가 줄 수 없는 아날로그적 감성이다. 책 표지의 디자인이나 제본 방식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장'이라는 개념에서 종이책은 E-book과 차별화된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나의 취향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긴 흔적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기억이 된다.

삶의 편리함을 더하는 E-book의 강점

E-book은 종이책이 갖지 못한 압도적인 휴대성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수백 권의 책을 가볍게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도 조명 걱정 없이 독서가 가능하고, 글자 크기를 조절하거나 궁금한 단어를 바로 검색하는 기능은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또한 E-book은 종이책에 비해 제작과 유통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다. 재고 부담이나 물류비용이 없어 작가나 출판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독립 출판이나 소수의 독자를 위한 전문 서적이 E-book 형태로 더 쉽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서로를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독서' 시대

이제 독자들은 굳이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소장 가치가 높은 소설이나 시집은 종이책으로 구매하고, 출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만한 자기계발서나 정보성 글은 E-book으로 읽는 '하이브리드 독서'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

종이책과 E-book은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는 깊이 있는 감성적 경험을, 다른 하나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 이 두 매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며 독자들에게 더 넓고 풍요로운 독서의 세계를 선물하고 있다.

종이책의 아날로그 감성과 E-book의 디지털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미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새로운 독서의 풍경이다.

취재수첩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짐이 되지 않기를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도심 곳곳이 다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얼굴, 이름, 덕담이 담긴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전신주, 심지어 인도변 가로수에까지 빽빽하게 걸렸다.

시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같은 풍경에 한숨을 쉰다. "추석만 되면 늘 저렇지"라는 체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무엇보다 공정한 정치 경쟁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가 남는다. 결국 돈과 조직을 가진 사람만이 도심 곳곳을 '점령'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의 장은 불평등하게 기울어진다. 당장의 눈도장을 위해 내일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신뢰를 갉아먹는 셈이다. 추석은 본래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웃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웃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반복되는 사회에서 과연 '공동체 정신'을 말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 기관은 '일시적인 명절 현상'이라며 사실상 눈을 감는다. 단속은 미약하고 철거는 뒷북이다. 그 사이 정치인들은 손쉽게 얼굴을 알리고, 시민들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한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불법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정치인들은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시민 앞에 서는 당당할 수 있는가. 그 근본에는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가 자리한다. 하지만 오늘 편하자고 불법을 용인하는 순간, 내일은 더 큰 혼탁과 불신으로 돌아온다. 작은 무질서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시민의 공간을 존중하고, 법의 울타리를 지키는 기본에서 진정한 정치가 시작된다. 불법 현수막 하나 걸지 않는 용기,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배려가 결국 가장 큰 정치적 신뢰로 돌아올 것이다.

추석은 본래 '함께'의 가치를 확인하는 명절이다. 정작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공간을 불법으로 점령하면서 덕담을 내건 현수막은 공허하다. 오늘만 편하자는 발상이 아니라, 내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불법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의 편리함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추석의 의미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서 찾고,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남에게서 찾는다. 기득권은 상대가 변하길 바라고, 혁신은 자기가 변하길 바란다. 혁신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편하자고 내일을 희생하지 말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기회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재편하면서 광주와 전남 또한 기회를 맞고 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지자체에 속도를 내는 중인 광주는 전남과 함께 에너지·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군을 집중 육성해 미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5년간 4천300억원의 AI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시는 6천억원 수준의 AI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국가컴퓨팅센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법 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세부적으로 AI 특화 계약학과 신설 및 연구인력 혁신센터 조성,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를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한다.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은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방시대위는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전폭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자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때다. 굳건한 원팀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며, 지방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의 공동체로 역할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이후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특별광역연합은 5극3특과 연계해 최첨단 미래산업을 키우고,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문화·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협력모델이다. 320만 시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호남의 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위대한 도전에 나선 것이다.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선에 섰다.

철강산업 광양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당위성

전남도가 산업통상부에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문이다. 앞서는 인접한 여수시가 지난 8월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남 동부권 핵심 전략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철강은 전남의 주력으로 꼽힌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23.1%(2022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며, 지역 수출의 17.9%(2024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글로벌 수요 둔화, 탈탄소 가속화,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이 동시다발로 발생, 중소업체와 협력사들은 연쇄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광양국가산단에 소재한 기업은 최근 2년 사이 생산(-13.4%), 수출(-10.3%), 고용(-2.3%) 트리플 감소로 침체돼 있으며, 광양시 지방세 징수액도 24% 급감했다.

산업위기지역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재정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철강산업의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때다. 국제 통상환경 악화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미국에 이어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도 관세를 예고,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 규제특례, 전기요금 인하 등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전남도는 연구개발 및 제조혁신 기술 개발, 고용 안정·인력 양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상권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AX센터 구축 등 2026년부터 5년간 3천871억원 규모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있다.

중추산업군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보다 선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민관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전남도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태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디카시 광장

정년퇴직

강만

다 까고 나니

눈물이 핑 ㅡ 돈다

※시작 노트

우리에게 정년퇴직이란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기쁨일까 슬픔일까 아쉬움일까 굴레에서 벗어난 홀가분일까
근데 왜 이리 눈물이 핑 돌까요?
마치 인생이란 양파를 다 까버린 것처럼.

/광주디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광고국		FAX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업무국 650-2019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